

Akzo, 2004년 화학사업 40% 매각

촉매 · 코팅 · 난연제 5억유로 매각계획 ... 2004년 펄프 · 제지 검토

Akzo Nobel은 부채를 절감하고 코팅 및 의약품 사업 인수에 대비한 자본금 확보를 목적으로 석유정제 촉매 (Refinery Catalyst), 코팅 레진(Coating Resin) 및 Phosphorous 사업을 매각할 방침이다.

그러나 종전 사업 매각액을 5억유로(5억400만달러) 인상한다는 계획을 변경해 그 이상 인상한다고 밝힘으로써 총 매각액이 1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사업의 매출규모는 2001년 총 10억유로로 Akzo의 전체 화학사업 매출의 221%, 사업 전체 매출의 7%를 차지하고 있어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Akzo는 매각 완료시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무엇보다도 자사 및 주주들을 위해 최상의 매각액을 측정하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신속히 매각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kzo의 코팅 중간체 사업은 Acrylic, Alkyd, Melamine, Polyester 및 Waterborne Res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 매출액 총 4억1400만유로를 기록했다. 현재 네덜란드 Bergen Op Zoom, 켄터키주 Louisville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중국 Suzhou 플랜트는 2004년 생산에 착수하게 된다.

석유정제 촉매 사업의 2002년 매출액은 총 3억7500만유로 특히, HPC(Hydroprocessing Catalyst) 및 FCC(Fluidized Catalytic Cracking)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Akzo는 현재 텍사스주 Amsterdam 및 Pasadena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브라질, 일본 및 프랑스와도 합작 플랜트를 건설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Phosphorus 난연제 사업 매출액은 2002년 총 2억유로에 달했다.

Akzo는 2003년 5월 화학제품, 코팅 및 의약품의 3개 방향전략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kzo는 3방향 전략의 핵심요소로 현 신용등급(Single A) 유지하는 것이며 이로써 코팅 사업의 Bolt-On 인수 및 의약품 사업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Dresdner Kleinwort Wasserstein에 따르면, Akzo Nobel의 사업매각을 기업의 분열이 아닌 새로운 CEO의 사업 집중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Akzo가 2005-06년 전까지 기업구조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사업매각액은 7억-8억유로로 예상되며 민간 투자기업 및 화학기업들이 코팅 레진 및 Phosphorus 사업매각에 큰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촉매 사업은 시장독점의 우려로 Engelhar 및 W.R. Grace를 비롯한 촉매기업이 인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민간 투자기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며, Johnson Matthey와 같은 다른 유력한 인수기업들은 SüdChemie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자금조달 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Akzo는 또한 2004년 3억5000만유로의 펄프 · 제지약품 사업 매각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쇄잉크 및 UV 잉크사업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Akzo는 2002년 펄프 · 제지약품 및 인쇄잉크 사업을 모두 현금을 창출하기 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따라서 펄프 · 제지 및 인쇄잉크를 포함하면 총 매각사업이 전체 화학사업의 40%에 달할 전망으로 Akzo가 본격적으로 화학사업 매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2/09>